

# 대학스포츠 03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소식지 | 2012. 08. 20.

##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 성명서 기자간담회

### 협의회 주요활동

대학스포츠TV 개국  
대학농구리그 경기기록실 오픈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2013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 제작·배포

### 대학리그 상반기 결산

### 대학리그 학생선수 인터뷰

축구 | 청주대 공민현, 농구 | 단국대 김상규, 배구 | 성균관대 박윤성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 CONTENTS



## 협의회 주요 행사

- 04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 성명서 기자회견담회
- 06 회원대학 총장 간담회
- 07 2012 대학스포츠 지도자 및 체육유관기관 긴급 합동 토론회

## 대학리그

- 08 대학축구리그 상반기 결산
- 12 대학농구리그 상반기 결산
- 16 대학배구리그 상반기 결산

## 협의회 주요 활동

- 18 대학축구 · 농구 · 배구리그 운영 지원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 19 대학농구리그 경기기록실 오픈  
대학축구 · 농구 · 배구리그 공식 포스터 발간
- 20 대학스포츠TV 개국

- 21 협의회 홈페이지 개편
- 22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자단 운영  
페이스북 개설
- 23 협의회, 스포츠산업 JOB FAIR 2012 참가 및 인턴채용

## 인터뷰

- 24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인턴 김정현 씨를 만나다

## 협의회 주요활동

- 26 「2013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 제작 · 배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제도 개선 T/F
- 27 2013 대학야구 체육특기자 입학 자격 요건 개정 협조 요청  
NCAA 매뉴얼 번역
- 28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 과제 공모  
「대학축구 · 농구 · 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 분석 및  
개선 · 발전방안 연구」 과제 공모
- 29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협의회 임원 선출  
KUSF 상표권 등록  
사무국 이전

## 학생선수 인터뷰

- 30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 청주대 공민현
- 32 단국대의 기둥, 김상규
- 33 숨은 살림꾼, 성균관대 박윤성

## 총장 동정

- 34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 협의회 주요 계획

- 38 2012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하반기 주요 계획





##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 성명서 기자회견담회

금전 스카우트 근절, 지원서 1인 1매 관행 중단, 경기지도자 처우 개선,  
학생선수 학업 증진 철저, 한국형 대학스포츠 운영관리 규정마련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지난 5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지난 3월, 새마을운동중앙연구소에서 대학스포츠 지도자 및 체육유관기관 대학스포츠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대학스포츠 주요 현안과 대학스포츠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이어 4월, 단국대학교 범정관 3층 대회의실에서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17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스포츠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다양한 대학스포츠 정상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 결과를 협의회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 성명서는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의 근절과 스카우트 관련한 학부모의 금품요구 배격, 체육특기자 '지원서 1인 1매 발급 관행' 중단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성명서 전문 및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의회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금전 스카우트를 반드시 근절'한다. 그리고 입학을 전제로 한 '학부모'의 금품 요구를 일체 배격'한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마련된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하여는 그 대학 관계자에게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요청하고 협의회가 관여하는 스포츠 경기에 일정 기간 출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배경** 지난 2012년 2월 1일 감사원의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실태 점검 결과 상당수의 대학들이 우수 체육특기자를 스카우트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불법으로 거액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다수의 대학스포츠 관계자들에 의하면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요구받는 사례가 자주 보고 되고 있다. 그간 본 협의회에서는 체육특기자의 금전 스카우트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약서를 마련하였는 바, 회원 대학 모두가 서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고자 한다.

**2** 본 협의회는 고교 학생선수가 대학을 입학할 때 제출하는 '지원서 1인1매 발급 관행'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차후에 이 관행을 폐지하도록 한다.

**배경** 이 제도는 고교 학생선수들이 여러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교 학생선수 1인이 1매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본 제도는 그동안 일부 대학과 대학감독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일종의 관행적인 제도인 바,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선수들에게 대학 진학의 선택 기회를 제한하고, 체육특기자의 부정 입학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본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대학 경기지도자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배경** 대부분의 대학 경기지도자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승리지상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불법 스카우트, 학생선수의 혹사, 학습권의 침해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운동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기지도자의 신분을 3~4년간 보장하도록 권유한다.

**4** 본 협의회는 '체육특기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하는 등, 학생선수의 학업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한다.

**배경** 각 대학은 해당 대학의 실정에 맞게 체육특기자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학업능력이 저조한 학생선수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5** 본 협의회는 '한국형 대학스포츠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외국(미국 및 일본)의 '운동부 운영 선진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다.

**배경** 종전의 대학스포츠 운영관리 규정은 각 대학마다 독자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왔는 바, 이는 대학스포츠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없었음은 물론, 대학 간에 공유도 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대학스포츠 종합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장호성 회장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강신욱 집행위원장

## 회원대학 총장 간담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2년 4월 3일(화) 오전 10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범정관 3층 회의실에서 제2대 회장인 장호성 총장을 비롯하여 17개 회원대학 총장들, 그리고 협의회 집행위원 5인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발전 방향과 대학스포츠의 현안들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를 하였다. 특히 지난 2012. 3. 31.(토) 새마을운동중앙연구소에서 개최한 바 있는 ‘대학스포츠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대학스포츠 지도자 및 체육유관기관 긴급 합동 토론회’의 결과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17개 회원대학 총장들이 결의한 내용은 ▲장기적인 관점의 학교체육 로드맵 개발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에 수능성적 일정 수준 이상 반영 ▲대학 경기지도자 신분 보장(3년 계약) ▲NCAA와 일본을 모델로 구체적인 대학스포츠 규정 마련 ▲학생선수 전지훈련 시 교수 파견 수업 ▲체육특기자를 위한 맞춤형 교

육과정 개발 필요 ▲고교 우수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시, 학부 모의 금전요구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떠나 위반 시 강제 조치 필요 ▲프로구단의 대학 지원 시 해당 선수의 출신 고·중·초등학교에도 일정 비율 지원금 배부(예70:15:10:5) ▲학생선수의 ‘드래프트제’는 논의 대상 제외 등이었으며, 이 결의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 농구·배구 리그 참여 15개 대학으로부터 ‘대학 체육특기자(농구·배구)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를 모두 제출받은 바 있다.





# 2012 대학스포츠 지도자 및 체육유관기관 긴급 합동 토론회 개최



**한** 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2년 3월 31일(토) 오전 11시 새마을운동중앙연구소에서 ‘대학스포츠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대학스포츠 지도자 및 체육유관기관 긴급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 토론회에는 정부부처·대학·체육유관기관 등의 대학스포츠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여 대학스포츠의 현안과 대학스포츠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학스포츠 지도자와 관계자가 대학스포츠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토론할 수 있도록 5개의 분임조를 구성, 분임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체육특기자 대입 특별전형 개선 방안과 ▲대학스포츠 운영 관련 대학별 현안 및 문제점 도출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협의회 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강신욱 집행위원장의 인사말 및 토론회 배경 설명, 오찬 후 분임 토론, 종합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분임 토론 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각 분임 대표가 분임 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이 내용에 대해 종합 토론하여 토론 결과를 도출하였다.

종합 토론을 거쳐 도출된 내용은 ▲대한체육회 “지원서” 폐지를 위해 노력하되, 신중하게 진행 ▲우수 학생선수 대학 입학 시 그 운동 파트너의 동시 입학을 긍정적으로 검토 요망 ▲대학 학생선수의 프로 진출은 최소한 대학 3학년 이후에 가능하도록 조치 ▲고교 우수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시 학부모의 금전 요구 인식 변화가 필요 ▲운동선수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대학스포츠의 질적 제고를 위해 “드래프트제” 도입 검토 필요 ▲프로구단의 각 대학 지원 시 해당 선수의 출신 고·중·초등학교에도 일정 비율 지원금 배부 ▲대학 경기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체육특기자를 위한 맞춤형 교과 과정 개발 필요 등이다.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대학스포츠 정상화 및 선진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광운대 · 동의대 · 광주대 거침없는 무패질주

2012 U리그 전반기 결산

지난 3월 30일 개막한 '2012 카페베네 U리그'가 6월 22일 13라운드를 끝으로 휴식기를 맞았다. 긴 휴식기가 끝나는 9월 4일부터 후반기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제 남은 경기는 팀당 4~7경기. 이미 18라운드 중 절반 이상의 경기를 끝냈다. 더불어 권역별 챔피언십 진출 팀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난 시점이기도 하다. 대학축구의 향연이 펼쳐진 지난 3개월을 살펴봤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팀이 많은 72팀이 리그를 치르고 있다. 지난해 리그에 참가했던 인천대, 성민대, 성화대, 명신대가 빠진 대신 글로벌사이버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숭실대, 오산대, 전주기전대가 새로이 발을 들였다. 권역 또한 새롭게 개편됐다. 총 8개 권역은 중부권 4권역, 영남권 2권역, 호남권 2권역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한 권역에 9팀이 편성됐기 때문에 매우 한 팀씩은 경기를 쉬어야만 한다.

U리그 무패 행진으로 승승장구하는 팀들이 있다. 바로 '광운대, 동의대, 광주대'다. 광운대는 중부권 3권역에서 8승 3무(승점 27)로, 동의대는 영남권 1권역에서 10승 2무(승점 23)로 권역 선두를 달리고 있다. 광주대 역시 호남권 1권역에서 9승 3무(승점 30)를 기록하며 권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광운대와 동의대는 각각 4실점, 3실점으로 리그 최소실점과 함께 '질식 수비'를 자랑했다.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 것이다. 반면 광주대는 창단한 지 4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광주대 특유의 끈기와 투지가 지금의 광주대를 만들었다.



## 호남대 정민우 '12경기 15득점'

U리그 전체에서 최고 득점자는 호남대 정민우이다. 정민우는 성균관대 한홍규(12경기 12득점), 연세대 황의조(12경기 11득점), 대구대 문동주(12경기 11득점)를 따돌리고 탁월한 득점 본능을 발휘했다. 정민우는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주전 자리를 꿰차며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다. 지난 6월 한려대전에서는 5골, 대불대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해 또 한 번 물오른 골 감각을 선보였다.

## 성균관대 · 호남대의 막강 화력, 리그 최다득점인 '37득점' 기록

성균관대 한홍규와 호남대 정민우의 공이 컸을까? 성균관대와 호남대가 리그 전체에서 37득점을 올리며 최다득점을 기록 중이다. 양 팀은 12경기를 치르는 동안 37골을 쏟아냈다. 경기당 평균 3골 이상을 터뜨린 셈이다. 이로써 성균관대와 호남대의 화끈한 공격력은 U리그에서의 '닥공' 축구로 빛나고 있다.

한편 8개 권역별 순위 경쟁도 매우 치열했다. 매주 엮히락뒤치락하는 순위 싸움은 그야말로 불꽃 튀는 전쟁이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권역은 중부권 3권역. 권역 내 고려대와 연세대의 맞대결이 U리그의 대형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더 큰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광운대의 '깜짝 반전'이었다. 고려대, 연세대와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광운대. 누구도 '무결점'에 가까운 광운대 축구를 막지 못했다.

〈표〉 2012 U리그 권역 구분

중부Ⅰ   01	중부Ⅱ   02	중부Ⅲ   03	중부Ⅳ   04
1. 관동대학교	1. 건국대학교	1. 경기대학교	1. 경희대학교
2. 동국대학교	2. 글로벌사이버대학교	2. 고려대학교	2. 단국대학교
3. 배재대학교	3. 디지털서울문화대학교	3. 광운대학교	3. 세종대학교
4. 서울대학교	4. 상지대학교	4. 국제사이버대학교	4. 송호대학교
5. 선문대학교	5. 수원대학교	5. 명지대학교	5. 송실대학교
6. 성균관대학교	6. 아주대학교	6. 연세대학교	6. 용인대학교
7. 제주국제대학교	7. 중앙대학교	7. 오산대학교	7. 청주대학교
8. 한민대학교	8. 충북대학교	8. 한라대학교	8. 한남대학교
9. 호서대학교	9. 홍익대학교	9. 한양대학교	9. 한중대학교

영남Ⅰ   01	영남Ⅱ   02	호남Ⅰ   01	호남Ⅱ   02
1. 경주대학교	1. 건동대학교	1. 광주대학교	1. 남부대학교
2. 대경대학교	2. 경운대학교	2. 군장대학교	2. 대불대학교
3. 대구대학교	3. 대구예술대학교	3. 동강대학교	3. 동신대학교
4. 동아대학교	4. 부경대학교	4. 목포과학대학교	4. 원광대학교
5. 동의대학교	5. 영남대학교	5. 서남대학교	5. 전주대학교
6. 문경대학교	6. 영동대학교	6. 우석대학교	6. 조선이공대학교
7. 안동과학대학교	7. 에원예술대학교	7. 전남과학대학교	7. 초당대학교
8. 인제대학교	8. 울산대학교	8. 조선대학교	8. 한려대학교
9. 한국국제대학교	9. 전주기전대학교	9. 호원대학교	9. 호남대학교

## 중부권 1권역 성균관대와 선문대의 악전

성균관대(9승 1무 2패)가 가공할 득점력에 힘입어 단독 1위에 올랐다. 동국대, 선문대, 관동대가 그 뒤를 이었다. 시즌 초반 동국대와 관동대가 1,2위에 머물며 순위를 굳히는 듯했다. 그러나 성균관대의 압박 축구가 점차 살아나면서 동국대전에서 극적인 43 승리를 거둔 동시에 선두를 탈환했다. 선문대는 관동대가 주춤하는 사이 이석현, 장백규를 앞세워 한민대, 서울대를 상대로 각각 승점 3점을 얻으며 전반기를 3위로 마쳤다. 한편 서울대는 1무 10패로 승점 1점을 올리는 데 그쳤다.

## 중부권 2권역 건국대와 아주대의 각축

건국대가 8승 2무 2패(승점 26)로 권역 선두를 지켰다. 선두 싸움을 벌였던 건국대는 조성빈, 김범용의

활약으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올해 저학년 선수 중심으로 구성된 아주대는 탄탄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홍익대와 수원대가 각각 3, 4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십 진출권에 들어섰다. 예상대로 중앙대가 부진에 시달렸다. 6위에 랭크된 중앙대(3승 3무 5패)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박용지가 집중 견제를 당했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 중부권 3권역 광운대의 고공행진

광운대의 꾸준한 상승세가 돋보였다. 광운대는 시즌 초 혼란스러웠던 수비라인을 정리한 뒤 놀라운 집중력을 드러냈다. 결국, 고려대전, 연세대전에서 완승하며 탄탄대로를 달렸다. 광운대에 이어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가 나란히 7승 3무 2패(승점 24점)로 뒤를 쫓았다. 그러나 지난해와는 다른 고려대의 모습이 었다. 주력 자원의 줄부상이 원인이었던 것. 반면 경기대, 국제사이버대, 오산대는 2승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 중부권 4권역 용인대와 숭실대의 위력

용인대, 경희대, 숭실대, 단국대가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현재 1위는 용인대(9승 1무 2패). 권역 내 최다득점(20득점)과 최소실점(5실점)을 기록한 용인대는 완벽한 공수 균형을 이뤘다. 올해 리그에 새롭게 참가한 숭실대의 위력 또한 대단했다. 리그 시작 후 6경기 연속 무패, 지난 6월에는 경희대전에서 5-1 대승을 거두며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반면 지난해 '무패행진' 한남대의 위용은 볼 수 없었다. 시즌 초부터 약체로 평가되는 팀들에 잇달아 패하면서 4승 3무 4패로 5위에 머물렀다.

#### 영남권 1권역 동의대의 독주

동의대(10승 2무)가 동아대, 대구대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단 3실점으로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준 동의대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다. 동아대는 성균관대와 호남대에 이어 35득점으로 리그 득점 2위를 기록했다. 팀 내 최고 득점자인 홍현진이 6골을 넣으며 고른 골 분포도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인제대, 대경대, 한국국제대, 안동과학대는 챔피언십 진출을 둘러싼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쳤다. 결국, 4위 인제대와 7위 안동과학대는 단 2점의 승점 차로 전반기를 마쳤다.

#### 영남권 2권역 '승점 26' 울산대와 영남대

울산대가 박빙의 선두를 지켰다. 영남대는 오창영, 이진석의 득점포로 10경기 무패행진을 달렸다. 하지만 울산대와의 리턴매치이자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2-1로 패하며 무패행진을 마감했다. 이로써 울







산대는 8승 2무 2패, 영남대는 8승 2무 1패로 승점은 26점으로 같으나 골 득실 차에서 밀린 영남대가 2위로 내려앉았다. 예원예술대(6승 3무 2패)와 부경대(4승 7무 1패)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 호남권 1권역 광주대의 파죽지세

광주대(9승 3무)가 무서운 상승세로 우석대(8승 3무 1패)를 제치고 1위를 달렸다. 광주대 정평열 감독의 '따뜻한 리더십'이 통했다. 정 감독의 따뜻한 배려와 믿음 속에서 광주대 학생선수의 실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창단 4년 만에 얻은 최고의 성적표다. 우석대는 유일하게 광주대를 상대로 패배를 당했지만 권역 내 득점 순위 1위인 광래승을 중심으로 선전을 펼쳤다. 조선대와 서남대가 승점 21점으로 3, 4위를 차지한 반면 전남과학대와 목포과학대는 승점 4점으로 하위권을 전진했다.

#### 호남권 2권역 호남대의 단독 1위

지난 해 남부권역 2위 호남대와 호남권역 1위 전주대가 만났다. 전반기가 끝난 지금 호남대(10승 1무 1패)가 승점 31점으로 전주대(8승 2무 2패)와의 승점 차를 5점 차로 벌여져 있다. 호남대에 정민우가 있다면 전주대에는 12경기 7득점의 맹활약으로 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주광선이 있었다. 초당대(5승 5무 2패)가 승점 20점, 대불대(5승 3무 4패)가 승점 18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보미





## ‘달아나는’ 경희대, ‘쫓는’ 고려대 · 중앙대

1학기가 끝난 지금, 각 대학의 성적표는?

지난해 대학농구리그의 일정이 일 년 내내 치러진 것에 반해 올해는 3월에서 10월까지로 짧아지며, 자연스레 학기별로 경기가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1학기에 대부분의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지난해 리그 1라운드를 마치고 여름방학 동안 2라운드 반전을 위해 노력했던 것에 반해, 올해는 7부 능선을 넘고 리그 마무리와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이미 많은 대학의 성적 윤곽이 드러나며 희비가 갈렸다. 경희대-중앙대-고려대의 트로이카, 치열했던 중위권 싸움, 그리고 신입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1학기를 돌아보자.

### 경희대 [1위 / 16승 1패] ‘레알 경희’, 패배를 경험하다.

연세대와의 개막전에서 무려 22점 차를 뒤집는 저력을 보였다. 1학기 막판 고려대 전에서도 김민구의 버저비터로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그야말로 이기는 법을 아는 팀이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연승기록을 갱넌 중앙대에 연승행진을 제지당하며, 1년 반 만에 리그에서 패배를 기록했다.

비록 1번의 패배를 경험했지만 경희대가 대학 최고의 팀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배병준-배수용과 두경민-김민구-김종규로 이어지는 3학년 트리오는 개개인 능력 역시 뛰어나지만, 무엇보다도 40분 내내 지칠 줄 모르는 질식수비와 뛰어난 조직력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경희대는 리그에서 최다득점과 최소실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후반기에는 고려대전을 제외하고 크게 부담 가는 경기가 남아있지 않으며, 올해도 유력한 정규리그 우승 후보다.



### 고려대 [2위 / 15승 3패] 안암골 호랑이, 2년간의 수모를 잊고 도약할 준비 완료!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며, 몇 년간 이어져 온 부진을 말끔히 씻었다. 고려대가 이렇게 1년 만에 환골탈태할 수 있었던 건 특급 루키 이동엽-문성곤 외에도 기존멤버들의 발전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기전의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정희재는 힘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이승현과 함께 골 밑을 든든히 지키고 있고, 외곽에서 김지후와 최형석이 특급 조커로 기용되며 필요할 때 한방씩을 해준다. 게다가 작년부터 활약해온 박재현-이승현은 여전히 팀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박재현-이승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문제다. 박재현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전체적인 흐름이 끊기는 경향이 있고, 이승현이 결장했던 성균관대전에서는 불의의 일격을 맞으며 패배한 바 있다. 박재현은 올 시즌 18경기에 나서 평균 36분을, 이승현은 올 시즌 16경기에 나서 평균 35분 30초를 뛰고 있다.

### 중앙대 [3위 / 14승 3패] 4학년 5인방을 앞세운 중앙대, 2라운드 전승을 향해!

중앙대의 2011년은 악몽이었다. 주전들이 연이어 부상당하며 정규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한양대에 업셋 시리즈를 내주었다.

절치부심하여 맞은 2012년, 부상자 없는 중앙대는 확실히 강자의 모습을 찾았다. 고무적인 것은 갈수록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시작이 좋진 않았다. 연세대를 상대로는 장재석이 파울트러블에 걸리며 끌려가는 경기를 했고, 경희대-고려대에 아쉽게 2점 차 패배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2연승이다. 패배를 안겼던 연세대-고려대에 이어 경희대에 차례로 설욕하며 2라운드 전승을 향해가고 있다.

이러한 중앙대의 중심에는 4학년 5인방이 있다. 정성수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청소년 대표 출신인 만큼 뛰어난 기량을 보유한데다, 시일이 갈수록 뛰어난 호흡을 보여주며 중앙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만약 이들이 시즌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2010년의 영광을 되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 연세대 [4위 / 11승 6패] 부상에 신음하는 독수리, 제 모습은 언제쯤?

시작부터 좋지 않았다. 시즌 시작 전부터 김기윤-주지훈이 부상당하며 개막을 함께할 수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몇 년간 구축해놓은 선수진은 탄탄했고, 최승욱-허웅이 즉시 전력으로 가세하며 초반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부상의 악령이 또다시 찾아온 것은 4월 9일, 숙명의 라이벌 고려대와의 경기였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주장 박경상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그 여파는 그다음 경기에서 바로 드러났다. 동국대에 버저비터를 맞으며 패했다. 끝이 아니었다. 단국대와의 경기에선 주전 센터 김민욱이 상대와 충돌하며 발목부상을 입었고, 1학기 막판, 김지완마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연세대는 2학기 분위기를 끌어올린 후 플레이오프를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박경상이 복귀했고, 남은 부상자들도 차례로 복귀할 예정. 부상자들이 모두 복귀한다면 연세대 역시 무시 못 할 전력임은 분명하다. 후반기 신춘 독수리의 비상을 기대해보자.

### 동국대 [5위 / 11승 6패] 신입생 듀오 앞세워 1년 만에 플레이오프 복귀

동국대는 작년에도 약한 전력은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주전 센터로 뛰어야 할 강창모가 부상으로 거의 경기에 나서고 있지 못함에도 전혀 그 공백을 느끼지 못하는 데는 신입생 이대현-서민수의 맹활약이 크다. 이대현이 평균 12득점-6리바운드, 서민수가 7.3점-6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가드진의 활약이 더해져 초반 무서운 기세를 보였다. 비록 경희대와의 경기에서 46점 차로 크게 패하며 그 기세가 조금 사그라졌지만, 여전히 플레이오프에서 도깨비 팀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7위로 마감했던 작년에 비해 5경기나 남겨두고 있음에도 플레이오프행을 확정할 점도 호재. 다만 두 가드 김윤태-김종범의 공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명이 활약하면 한 명은 부진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선수가 같이 활약할 길을 찾아야 동국대가 더 높은 순위를 바라볼 수 있다.

**성균관대** [6위 / 8승 9패] **기적 같은 드라마를 바라다**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개막전부터 내리 3연패 했고 명지대를 제외한 단국대-동국대-건국대-한양대에 차례로 패하며 중위권 싸움에서 밀려났다. 10경기 3승 7패. 하지만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고려대가 분명 객관적 전력에서 앞서있었지만, 이승현이 빠진 상태였다. 고려대에 1승을 거두며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1라운드 22점 차였던 동국대와의 경기를 2점 차로 패했고 명지대-건국대-단국대를 차례로 꺾으며 단숨에 6위까지 도약했다. 게다가 이미 명지대, 건국대, 단국대는 6강 플레이오프에서 한 발 밀려난 상황. 이제 한양대만 넘어서면 극적인 플레이오프 합류가 눈에 보인다.

성균관대의 이러한 상승세를 이끈 것은 바로 임종일의 변화다. 전년도 득점왕에 빛나는 임종일은 분명 득점력은 있으나 본인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임종일이 팀플레이에 눈을 뜨기 시작하며 윤이규, 송병준의 득점력이 살아났고 전체적으로 성균관대가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양대** [7위 / 8승 11패] **달을 듯 말 듯한 플레이오프 티켓**

비록 매번 막차를 타긴 했지만 한양대도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자격이 있는 팀이다. 올해도 1라운드 5승 6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2라운드 들어 단국대에 1패를 내어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 한양대나 성균관대나 남아있는 일정은 대부분 강팀뿐. 결국, 8월 29일 양 팀의 승자가 마지막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마지막 티켓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바로 실책이다. 한양대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동건을 올리 드래프트로 내보냈다. 그만큼 가드진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였다. 물론 한양대는 경기당 13.5개의 어시스트와 7.9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앞 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책으로 한 번에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많고, 연속적으로 실책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한양대의 정효근은 평균 15.5득점 7.9리바운드 1.9어시스트로 전체 신입생 중 가장 나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경기당 3.4개의 실책을 범하며 다소 실책이 많다.

**단국대** [8위 / 6승 12패] **철인 김상규에 의하여, 철인 김상규를 위하여**

시즌 초반은 좋았다. 성균관대와 명지대를 눌렀다. 하지만 동국대에 1점, 건국대에 2점 차로 패하며 도약의 기회를 놓쳤다. 1라운드 4승 7패. 2라운드에서도 같은 양상이었다. 한양대, 건국대를 꺾었지만 동국대, 명지대, 성균관대에 잡혔다. 중위권 대학이 6위안에 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경쟁자인 중위권 대학을 상대로 강세를 보이거나, 생각지 못한 상위권 대학을 잡아내거나. 하지만 단국대는 초반 승수를 쌓지 못한 것이 아쉽다.

사실 단국대가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시스트, 블록, 야투 성공 등 대부분의 팀 기록이 하위권에 처져 있는 반면 실책은 성균관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점. 그럼에도 단국대가 이 정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 팀의 기동, 김상규의 공이 크다. 김상규는 현재 평균 29.1득점 14.8리바운드로 두 부분에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스틸, 어시스트도 팀 내 1위를 달리고 있다. 게다가 평균 39분 55초를 소화하며 대학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출전했다.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건국대** [9위 / 6승 12패] **2년째 보지 못한 나의 님이여**

시즌 시작도 전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이대혁의 무릎 연골 손상. 또다시 시즌 아웃이었다. 이대혁은 결국 유급을 결정했다. 이대혁의 시즌 아웃은 본인뿐만 아니라 팀에도 큰 손실이었다. 신입생 유영환이 분전했지만 다른 팀에 비해 높이가 확연히 낮았다. 건국대의 팀 리바운드 순위는 조선대, 상명대에 이은 뒤에서 3위다.

물론 건국대의 강점도 있다. 경기당 3점 쏘는 7.9개로 2위, 성공률은 3위다. 팀 실책은 경기당 9.9개로



유일하게 10개 미만이다. 그럼에도 건국대가 치고 올라가지 못한 것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야투율 때문이다. 팀 내 공격 시도횟수가 가장 많은 이원대의 야투율은 고작 39%밖에 되지 않는다. 궂은일에 치중하고 있는 이도안은 공격 시도횟수가 많진 않지만, 더 낮은 30%의 야투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연스레 득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골밑자원의 부재와도 연결된다. 높이가 좋은 팀일수록 야투율이 높고, 상대팀의 야투율이 낮다. 이대혁의 부재는, 그만큼 뼈아프다.

#### 명지대 [10위 / 6승 12패] 공든 탑이 무너지다

1학기 막판 무너지며 현재 상황이 제일 좋지 않은 팀이라 할 수 있다. 3시즌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탈락 위기다. 지금까지 8승 10패를 기록했어야 하는데, 최하위권인 상명대-조선대에 연속 패하며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아무리 경기당 19득점을 올리는 김수찬이 부상이라고 해도.

팀 컬러인 Run & Gun은 여전하다. 가드진이 재빨리 속공을 연결해낸다. 3점 슛 성공률도 괜찮다. 문제는 수비다. 명지대는 경기당 77점을 넣고 있는 반면 무려 86점을 내주고 있다. 조선대에 이은 리그 2위다. 뿐만 아니라 상대 야투율, 3점 슛 성공률과 경기당 내주는 자유투, 어시스트에서도 상위권이다. 쉽게 어시스트 패스를 내주고, 공격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경희대와 중앙대는 모두 강력한 속공을 구사하는 팀이다. 하지만 그들은 강한 수비까지 갖추고 있기에, 강팀이다. 명지대 역시 좀 더 강한 수비로 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상명대 [11위 / 2승 14패] 새 감독 부임, 어떤 농구 펼칠까

올해 여러 감독들은 입을 모아 상명대가 많이 나아졌다고 말한다. 올해로 1부 대학 3년 차인 상명대는 매년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1부 리그에 안착하고 있다. 하지만 재작년-작년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3점 슛은 사라졌다. 경기당 1.3개가 줄어들었고, 성공률도 낮아졌다. 2년 연속 3점 슛 왕을 배출했던 상명대이기에, 그 공백이 더 커 보인다.

상명대의 특이사항은 1학기가 끝나고 한상호 감독이 돌연 사퇴했다는 점이다. 상명대의 창단과 1부 대학 진입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 반 동안 상명대를 이끌어온 감독이다. 상명대는 금호생명 등에서 하위권 팀을 끌어올리는데 일가견을 보인 이상윤 감독을 선임하였다.

약 4년간 지도해온 한상호 감독에 이은 이상윤 감독 체제에서 어떤 농구를 구사할지, 이상윤 감독이 이번에도 팀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조선대 [12위 / 1승 15패] 뒤늦게 올린 귀중한 1승

뒤늦은 1승을 거두기까지 15경기나 돌아와야 했다. 아무래도 평균 16득점-8.9리바운드를 해주던 이대연의 공백이 커 보인다. 198cm의 장신 최영일이 입학했지만,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다. 믿을 건 주포 김동우다. 상명대와의 개막전을 제외하곤, 모두 제 몫을 다했다. 기복이 있긴 하지만 김휘민 역시 화력이 있는 선수다.

앞서 명지대의 수비를 언급했지만, 가장 수비력 보강이 시급한 팀은 사실 조선대다. 100점 이상의 실점을 한 경기가 무려 5경기다. 평균 실점이 96.4점에 달한다. 조선대를 상대한 팀들의 평균 야투율은 64.5%, 3점 슛도 38%에 달한다. 리바운드도 44개, 어시스트도 18개나 내줬다.

그래도 조선대는 아직 6경기나 남겨두었다. 무려 5경기가 홈경기이다. 게다가 경희대-고려대-중앙대-연세대 경기는 이미 치렀다. 조선대가 지난해 2승, 올해도 1승을 거두고 있지만 홈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2010년 9월 6일, 상명대와의 경기가 마지막이었다. 방학 동안 수비를 보완해서 홈에서 학우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며 유종의 미를 거둘 때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권오준





## 경기대 18연승 독주...춘계대회 5연패 달성

2012 대학배구리그 춘계대회 결산

대학배구리그 춘계대회가 끝나고 달콤한 휴식도 잠시, 학생선수들은 다시 추계대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의 열정은 한때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다. 은근히 젖어드는 보슬비처럼 코트 위를 땀으로 적시고 있다. 2012 대학배구리그 춘계대회를 돌아보자.

2012 삼성화재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홈&어웨이) 우승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대학교였다. 이로써 춘계대회 5연패를 달성한 경기대. 우승이 낯설지 않은 이들이지만 경기대의 이번 춘계대회는 예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전승 우승'이라는 점. 춘계리그부터 챔피언결정전까지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며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경기대는 춘계대회 이후에 열린 종별선수권대회, 종합선수권대회, 전국체전 출전을 위한 경기도평가전에서도 전승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18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무려 지난해 추계대회 성균관대전 승리부터 시작된 연승 기록이다.

대학배구리그 레이스에서 경기대는 그야말로 독주를 하고 있다. 경기대의 춘계대회 우승은 이상렬 감독 부임 이후 첫 우승이기에, 또 공격 거포였던 최홍석의 프로 진출 이후 차지한 우승이기에 더 뜻깊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길, 경기대가 졸업생 전력 누수로 많이 흔들릴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갔



다. 오히려 지난해, 4학년 최홍석이 국가대표로 차출되며 경기대는 에이스 최홍석 없이 시합을 치르는데 익숙해져야 했다. 이것이 오히려 지금의 경기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던 셈. 덕분에 경기대는 다른 대학이 졸업생의 공백으로 난항을 겪을 때 흔들림 없이 전력을 지켜갈 수 있었다. 특히 춘계대회 내내 좋은 활약을 펼치며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송명근은 국가대표 깜짝 선발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경기대를 위협하고 있는 팀, 바로 성균관대학교이다. 춘계대회 6승 1패, 춘계리그 2위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이들은 종합선수권과 경기도평가전에서도 경기대와 결승에서 만났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나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다. 성균관대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부상. 특히 춘계대회 챔피언결정전에서는 주전 레프트 심경섭이 부상으로 결장했고 레프트 전광인 역시 국가대표 차출로 팀 전력에 공백이 컸던 점이 아쉬웠다.

춘계대회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에서 모두 3위를 거둔 인하대학교는 특유의 강서브로 상대 팀의 리시브를 흔들어 놓으며 인상 깊은 경기를 펼쳤다. 특히 홈경기에서 강세를 보이며 5승 2패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지난해 추계대회에서 3승 4패로 5위에 그친 아쉬움을 떨칠 수 있었던 춘계대회였다.

챔피언결정전으로 향하는 4장의 티켓 중 마지막 한 장을 차지한 팀은 바로 홍익대학교였다. 지난해 춘계대회와 추계대회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춘계대회 우승을 노렸지만 결국 경기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번에도 준우승에 그쳤다.

이처럼 춘계대회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팀은 경기대, 성균관대, 인하대, 홍익대다. 이번에는 기존 챔피언결정전 방식과 달라진, 풀리그전으로 우승팀을 가렸다. 지난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졌던 챔피언결정전이 올해는 풀리그전으로 진행되며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또한 승점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순위에 대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다는 점 또한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였다. 이에 챔피언결정전 이후 순위는 경기대, 홍익대, 인하대, 성균관대(챔피언결정전 순위별)로 변동이 생겼다. 이것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스포츠의 묘미가 아닐까.

이들 네 팀 외에 아쉽게 챔피언결정전 반열에 오르지 못한 경희대학교가 있다. 경희대는 춘계대회 첫 상대였던 한양대를 셋아웃으로 누르며 파란을 예고했었다. 그 이후에도 부상에서 회복한 라이트 이강원의 공격력이 살아나며 상대 팀을 위협했다. 그러나 홈경기를 할 수 없어 모든 경기를 원정경기로 소화해야 하는 점이 이들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결국, 3승 4패, 5위로 챔피언결정전 티켓 획득에 실패한 경희대는 추계대회에서 다시 한 번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도전한다.

이번 춘계대회에서 가장 큰 이변은 한양대학교였다. 지난 추계대회에서는 리그 2위를 기록, 시즌 내내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이들이 올해 전반기에는 유난히 흔들렸다. 지난해 종별선수권대회에서 결승까지 진출했던 한양대이기에 더 뼈아픈 추락이다. 이들은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배구 명문 자존심을 회복할 각오다.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와 명지대학교다. 이들은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조선대가 승리를 하며 각각 리그 7위와 8위를 기록했다. 단 1승만을 거둔 조선대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기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명지대는 지난 추계대회에서 폴세트 점전 끝에 경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번 시즌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지만 승리를 하나도 챙기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로써 대학배구리그 전반기가 끝이 났다. 전반기의 총평은 그야말로 '경기대학교의 최강 경기(競技)력으로 경기(驚氣) 나는 대학배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어질 하반기에서는 더욱더 막강해진 경기대의 독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경기대의 레이스에 제동을 걸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김선우



## 대학리그 운영 지원

기존의 대학스포츠 경기는 주로 캠퍼스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단기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런 형식의 대회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침해를 불러왔고, 녹다운 방식이다 보니 각 팀은 눈앞의 승리와 우승에만 치중해야 했다. 결국은 학생 선수 개인과 팀의 경기력 향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0년, 대학스포츠 정상화의 기본 축인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 리그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정부의 지원 아래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가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캠퍼스 내 리그로 시행되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토너먼트 방식에서는 예선탈락으로 경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약체 팀에도 동일한 경기 기회가 주어져 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체력관리 면에서도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대학리그 운영을 지원한 지 어느덧 3년 차다. 2008년 10개, 2009년 22개 대학이 참가했던 대학축구리그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66개→69개→72개로 참가대학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7권역 체제에서 올해 8권역으로 확대운영을 시작했다.

대학농구리그는 한국 대학농구 역사상 최초로 '2012 대학농구 올스타전'을 시행했다. 첫해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내년을 기대케 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일정이 10월로 앞당겨졌다. 대

학졸업예정 선수들이 프로팀에 녹아들 충분한 연습기간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리그 종료 후 졸업반 선수들의 약 10개월에 달하던 공백기를 없앨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많다.

대학배구리그는 올해부터 챔피언결정전을 폴리그제로 진행함과 더불어 승점제를 도입했다. 경기 세트 스코어에 따라 승점을 따로 매기는 프로와 같은 방식이다. 세트 스코어 3대 0 또는 3대 1로 이긴 팀에는 승점 3점을, 3대 2로 이긴 팀에는 2점을 부여한다. 폴세트까지 갔을 경우, 패한 팀에게도 1점을 준다. 승리 횟수가 같아도 순위에 차등을 둬으로써 경기 결과와 내용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게끔 하는 평가방식이다. 또한 1, 2세트를 연속으로 내주고도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이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배구리그에서는 대학생다운 열정과 투지를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단위: 천 원〉

공익사업적립금	2010년	2011년	2012년
축구리그	2,880,000	1,300,000	650,000
농구리그	1,500,000	320,000	320,000
배구리그	600,000	420,000	320,000
	4,980,000	2,040,000	1,290,000

##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농구연맹은 3월, KB금융그룹과 2012 대학농구리그 공식 후원사 계약을 체결했다. KB금융그룹은 대회명칭 제정권 및 후원명칭 사용권, 경기장 A보드 4면 광고권, 경기장 내·외 행사 및 프로모션 권리 등을 확보하며 1년간 대학농구리그를 후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 대학농구리그의 공식 명칭은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로 명명되었다.

KB금융그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학농구리그 공식 후원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국 코카콜라 유한회사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대학농구리그 공식 후원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 코카콜라 유한회사는 2012 대학농구리그 음료 부문 독점권, 경기장 A보드 2면 광고권, 경기장 내·외 행사 및 프로모션 권리 등을 확보하며 1년간 현금과 이온음료 등 현물을 후원하기로 했다. 한국 코카콜라 유한회사는 각 대학 홈 경기 시 체육관 앞에서 관중에게 음료를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펼치기도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2 대학농구리그 LIVE/VOD 비독점 방송권 및 영상물 편집권 권리를 확보하며 대학농구리그를 후원함과 동시에 미디어 파트너로서 대학농구리그의 미디어 노출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농구연맹은 2011년 3월 24일, 스포츠 마케팅 전문회사 (주)IB스포츠와 4년간 '대학농구리그'에 대한 마케팅 대행 권리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농구연맹은 2011년 3월 24일, 스포츠 마케팅 전문회사 (주)IB스포츠와 4년간 '대학농구리그'에 대한 마케팅 대행 권리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대학농구리그 경기기록실 오픈

록 전산화가 이루어졌으나 학생선수의 부문별 기록과 팀 기록 및 전력에 대해서 한눈에 살펴볼 자료는 부족했다. 이에 협의회는 프로농구연맹 홈페이지의 경기 기록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농구리그 참여 학생선수와 팀의 기록과 통계치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기록실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2년 6월, 드디어 대학농구리그 경기기록실이 오픈했다. 협의회는 홈페이지에 아래 9가지 항목에 대한 대학농구리그 기록 통계 메뉴를 신설해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 ① 팀 순위
- ④ 부문별 팀 순위
- ⑦ 공격력비교
- ② 팀 누적 통계
- ⑤ 부문별 선수 순위
- ⑧ 수비력 비교
- ③ 팀 기록 비교
- ⑥ 팀/선수별 경기기록
- ⑨ 경기별 팀/선수기록

대학농구리그 현장 각 팀 벤치에는 몹시 바빠 보이는 학생선수가 있다. 부지런히 펜을 들고 경기 내용을 기록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프타임과 경기 종료 후에는 현장 기록원이 입력한 전산 기록지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대학농구리그 경기기록실이 오픈되기 전까지의 풍경이다. 이전에는 학생선수, 팀 그리고 경기 관련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팀 전술 흐름의 패턴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기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를 탓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대학스포츠 경기와 관련한 정보 등을 예측, 진단, 평가하여 학생선수 개인은 물론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학농구리그 경기기록실을 개발하여 오픈하였다. 이 기록실은 동시에 학생선수의 과학적인 훈련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선수의 안전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작년부터 대학농구리그에서 뛰는 학생선수와 팀의 경기 기

현재 대학농구리그 경기기록실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홈페이지와 대학스포츠 블로그, 그리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인터넷방송 대학스포츠TV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학농구리그를 주관하는 대학농구연맹 홈페이지에서도 기록실을 공유할 방침이다.

대학농구리그 기록실을 통해 학생선수 개인과 팀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심층적인 경기지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대학농구리그의 활성화와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학축구 · 농구 · 배구리그 공식 포스터 발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축구 · 농구 · 배구리그의 홍보를 위하여 공식 포스터를 발간하였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대학축구리그 8개 권역별 각 500부 ▲대학농구리그 1·2라운드 각 550부 ▲대학배구리그 춘계·추계리그 각 500부 등 공식 포스터 6,100부를 제작하여 각 대학 체육부를 통해 배포하였다.

## 대학스포츠TV 개국

**“대학스포츠를 보고 싶어도 직접 찾아가기엔 너무 멀리 있는 그대, 대학스포츠 경기 전후로 수업이 있어 체육관에 찾아가지 못한 그대, 이미 끝난 경기를 놓쳐버려 안타까워하는 그대, 모두 대학스포츠TV로 모여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국인 ‘대학스포츠TV’를 개국했다.

그간 기성 언론의 대학스포츠 관련 보도는 매우 미흡하여 대학스포츠의 고유한 가치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수단의 개발이 시급했다. 특히, 대학스포츠의 주인공인 대학생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높고 스마트폰 이용률이 84%에 달하나 웹상으로 제공하는 대학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미약했다. 이에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문화 콘텐츠 창출을 위해 대학스포츠TV를 개국·운영하게 되었다.

대학스포츠TV는 4월 말 개국 이후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44경기의 생방송과 153개의 VOD 영상 편집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기자간담회 등 대학스포츠 관련 영상 11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학스포츠TV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생방송, 모바일 생방송, VOD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대학스포츠 영상 콘텐츠를 한 곳에 담고 대학스포츠 문화 창출의 장으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대학스포츠TV는 우리 협의회의 홈페이지와 전용 URL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http://kusf.or.kr/tv>, <http://kusf.or.kr/mtv>(모바일)

대학스포츠TV는 HD급 화질과 VOD 서비스 등 덕분에 많은 시청자가 찾고 있으며, 지난 6월 15일, 경희대와 중앙대의 대학농구리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는 1,500여 명이 시청하고 3,000여 명이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대학스포츠 열기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학스포츠TV를 계획하며 대학스포츠의 정상화·활성화·재정

자립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던 협의회는 대학스포츠TV 상반기 운영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스포츠 정상화 측면에서는 대학생, 대학 구성원 등의 인터넷 방송 시청률 증가로 대학스포츠 및 대학리그의 가치 공유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인터넷 생방송으로 인하여 학생선수과 지도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며 관중의 관람 매너도 매우 향상되었다. 또한 대학농구리그 기록실과 연동하여 경기 영상과 경기 기록을 활용, 학생선수의 경기력을 진단·분석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공식 자료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학스포츠 활성화 측면에서는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의 순수한 경기 영상을 비롯해 경기 하이라이트,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터뷰와 더불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학스포츠 현장 스케치 및 관중 인터뷰 등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를 페이스북을 통한 추천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생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각 대학 체육부의 관심 또한 증가하여 대학리그 각 대학 홈경기 시 경기장 준비에 더욱 세심한 준비를 기울이는 등의 효과도 거두었다.

대학스포츠 재정자립 측면에서는 대학스포츠TV 개국 후 시청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대학스포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폰서십 시장과 광고 효과의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협의회는 하반기에도 효과적인 대학스포츠TV 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협의회 홈페이지 개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했다.

협의회는 2010년 6월 출범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였으나, 기존 홈페이지는 단순 홍보 페이지로 대학스포츠 관련 정보 제공이 다소 미약했다. 협의회 출범 1년 6개월 시점에서 협의회와 대학스포츠 관련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협의회 공식 홈페이지를 정보 공유형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홈페이지 고도화·활성화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홈페이지 고도화·활성화 사업을 통해 ▲홈페이지 고도화 ▲홈페이지 활성화 ▲대학스포츠 기록실 개발(농구) 등 크게 세 가지 개편을 단행하였다. 메인 화면 디자인 작업을 통해 콘텐츠 영역을 확대하는 등 콘텐츠 접근성을 보강하였고, 홈페이지 메뉴 개편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용자 글 게재 시, 보다 다양한 편집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대학스포츠 기록실 개발의 일환으로 기록지 전산화가 완료된 대학농구의 기록실 개발을 실시하여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대학농구의 공식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스포츠TV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협의회 홈페이지가 대학스포츠 정보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협의회 홈페이지 개편 이후 협의회 및 대학스포츠 소식을 접하고자 홈페이지를 찾는 이용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대학농구 기록실 개발 및 대학스포츠TV 개국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스포츠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협의회 홈페이지를 찾는 이용자가 매우 증가하였다.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기록실 추가 개발(배구) 등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힘을 예정이다.



#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자단 운영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자단 2기 활동 마무리, 3기 활동 시작”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2기 12명의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제1기 10명에 이어 지난 1월 새로 구성된 제2기 12명의 학생은 학기 초,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에 참여하는 대학과 학생선수를 소개하는 기사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다양한 대학스포츠 이야기를 취재했다. 제2기가 게재한 약 200여 개의 블로그 기사들은 경기리포트와 인터뷰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학배구리그의 경우에는 경기상보를 전하는 매체가 많지 않아 경기내용을 알고자 하는 대학스포츠 및 대학배구 팬들이 대학배구리그 경기리포트를 보고자 우리 블로그를 많이 찾았다. 이에 블로그 기자단은 더욱 열정적으로 전 경기를 취재하여 경기리포트를 작성했다. 경기장으로 부지런히 움직인 이들의 노력으로 이전 기수에 비해 게재된 기사의 숫자는 늘었지만 대학스포츠 현안 관련 주제를 논한 기획기사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6월을 끝으로 기자단 제2기 활동은 마무리되고, 7월 3일,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3기 12명이 구성되었다. 7월 11일 제1차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새로이 활동을 시작한 제3기는 대학스포츠 블로그 개설의 본 취지에 맞추어 대학스포츠 리그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 주제를 대학생과 대학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경기 현장 취재 및 기사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스포츠 현안과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생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담아낼 계획이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3기의 활동은 2012년 12월까지다.

## 페이스북 개설

facebook

[www.facebook.com/kusfsport](http://www.facebook.com/kusfsport)



보이는 곳에 공지되지 않은 소소한 정보까지 알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들의 정보원은 어디일까? 바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페이스북 이용자 536만 명, 트위터 이용자 544만 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의 파급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이를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은 기본이 된 지 오래다. 이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역시 협의회 공식 페이스북 팬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대학스포츠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 시작한 서비스이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대학리그 경기 일정과 블로그 기사 업로드 안내, 협의회 공지사항 업로드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스포츠를 홍보하고 그와 관련된 다

양한 소식과 콘텐츠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자 개설된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해 대학스포츠 홍보와 마케팅의 장으로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2년 8월 현재 백십여 명의 페이스북 회원이 협의회 페이지를 즐겨 찾는 상태이며, 점차 대학스포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대학스포츠와 관련한 젊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페이지로 만들어 천 명 이상의 페이스북 회원이 협의회 페이지를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협의회 페이스북 팬 페이지는 페이스북에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로 검색하거나 대학스포츠 블로그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



# 협의회, 스포츠산업 JOB FAIR 2012 참가 및 인턴채용



한국대스포츠총장협의회는 지난 3월 30일,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관에서 열린 ‘스포츠산업 JOB FAIR 2012’에 참가했다.

(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와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스포츠산업인력 채용 박람회인 ‘스포츠산업 JOB FAIR 2012’에는 우리 협의회를 비롯하여 아마·프로스포츠 단체, 스포츠마케팅·시설·용품 관련 업체 등 90여 개 스포츠 관련 기관이 참가하였다. 당일 약 8,000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등(주최 측 추산) 성황리에 개최된 이 박람회에 참가하여 협의회와 대학스포츠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약 200여 명의 대학생과 대학졸업생이 협의회 부스(A09)를 방문, 담당자와의 현장 면담을 신청하여 협의회의 주요 업무와 대학스포츠의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고 그 중 60여 명의 대학졸업생은 협의회의 인턴 및 계약직 모집과 관련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스포츠산업 JOB FAIR 2012’ 참가에 앞서 우리 협의회는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주최한 ‘2012년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의 체육분야 인턴운영기관으로 등록하여 인턴모집을 계획한 바 있다.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운영 종합실태 분석과 대학스포츠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 충원을 하고자 인턴모집을 계획했다. ‘스포츠산업 JOB FAIR 2012’ 현장에서 인턴모집 홍보와 인턴채용 희망자와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총 21명의 유능한 인재가 지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생 김정현 씨가 우리 협의회에 첫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었다.

지난 5월 1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근무를 시작한 김정현 씨는 현재 대학스포츠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 ‘스포츠 관련 전공자(체육특기자 포함) 진로취업 가이드북’ 제작 업무를 도맡는 등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



# “아마추어, 그 순수함에 끌렸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인턴

김정현씨를 만나다

2012년 5월, 올해로 세 번째 생일을 앞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바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협의회에 들어온 인턴 김정현 씨가 그 주인공. 협의회 사무국 한편에서 훈훈함을 발산하며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2011년에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초부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인턴으로 일하게 된 김정현입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현재 협의회에서 대학 체육특기자들을 위한 진로·취업 가이드북 제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체육특기자들을 위해 대학입시전형을 정리한 가이드북도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선수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스포츠산업 JOB FAIR 2012’와 ‘2012년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인턴으로 지원하셨는데, 많은 스포츠 관련 기관 중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사실 스포츠와 관련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었기 때문에 협의회 말고도 프로배구연맹과 세마스포츠 등 여러 군데에 지원서를 넣었어요. 서류 지원 후 협의회를 비롯한 몇 군데로부터 면접을 보러오라는 통보를 받았지요. 저는 협의회 면접을 보겠다고 생각했죠. 굳이 협의회를 선택한 이유는 이전에 스포츠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크게 작용했어요. 스포츠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은 스포츠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의 본질과는 다른 부분이었어요. 저는 스포츠의 순수함을 추구했거든요. 아마추어 스포츠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함이에요. 대학스포츠를 담당하는 협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Q 협의회에서 근무하며 대학스포츠의 현실에 대해 깨달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A**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대학교와 고등학교 체육특기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일인데요, 그러한 일을 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체육특기자들을 위한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학교에서 대학스포츠 무대를 뛰고 있는 학생선수를 위해 운동 외적으로의 지원이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복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일을 하다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의 엘리트 스포츠와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현실을 비교해 보곤 해요. 외국에서는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튜터 제도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엘리트 스포츠와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외국의 학생선수는 운동 외에도 하고자 하는 공부나 다양한 활동을 운동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죠.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 때는 물론이고 대학 무대에서 뛰는 학생선수가 ‘학생’이라기보다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또 대학스포츠가 마케팅 면에서 아직 아쉬운 상황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학스포츠 무대의 몇몇 스타 선수가 주목을 받기도 하고, 대학스포츠가 프로스포츠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예전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학스포츠를 찾아 주고 응원해 주는 팬들이 많아야 학생선수도 신이 나서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대학스포츠 경기도 프로스포츠 경기 못지않게 재미와 감동, 스틸의 삼박자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울 뿐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스포츠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협의회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일이 있나요?**

**A** 우리 협의회는 ‘학생선수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칭이라 정확한 명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최저학력과 관련

된 프로젝트입니다. 훈련이나 대회 때문에 수업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성적 관리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예요. 외국의 엘리트 스포츠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정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우리 협의회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아가야 할 길이 멀지만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가이드북, 대학 체육특기자들을 위한 진로·취업 가이드북 등과 같은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대학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네요.

또한 지금 우리 협의회가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일은 대학스포츠 기록실 구축 사업입니다. 대학농구는 이미 올해 초부터 협의회 홈페이지에 기록실을 마련해 놓았지만 대학배구는 아직 기록실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기록실을 구축해서 대학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대학스포츠 팬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많이 방문해주셔서 대학스포츠 관련 소식도 얻어 가시고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협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대학스포츠 현장을 더욱 밝힐 수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터뷰 내내 밝은 모습과 자신감 있는 답변으로 대학스포츠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던 인턴 김정현 씨. 인턴이 된 지는 아직 짧은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벌써 대학스포츠 전반에 대해 꿰뚫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과시했다. 앞으로도 대학스포츠를 위한 무궁무진한 활약이 기대된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박소정

## 「2013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 제작 · 배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3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를 발간 · 배포하였다. 「2013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은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전국 70여 개 대학의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및 40여 개 대학의 수시모집 일반전형을 정리하여 단체 운동부를 육성하는 전국 336개 고등학교에 발송, 학생선수와 교사 및 지도자에 다양한 대학의 입학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선수에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작하였다.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201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토대로 편집 · 제작한 이 책자에는 ▲대입전형요강 필수용어 해설 ▲대학별 대입전형요강 일람표 등을 수록하여 대입전형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요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어려운 학생선수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0여 개 대학의 수시모집 일반전형 중 체육 관련 학과의 대입전형요강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자는 8월 초 발간되었으며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럭비, 아이스하키, 핸드볼과 같은 단체 종목 운동부를 보유한 전국 336개 고등학교에 무료로 배포되었다.

협의회는 그간 대입전형요강 관련 정보의 무지로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한 고교 학생선수에게 이 책자가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각 대학의 학생선수 선발 제도를 진단 ·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제도 개선 T/F

그간 “금전을 통한 대학 체육특기자 스카우트” 등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실태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또한, 2011년 5월 16일부터 실시된 감사원의 「학사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시, 금전을 통한 체육특기자 스카우트 사례가 적발되었다. 2012년 2월 1일, 감사원이 「학사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체육특기자 제도의 운영 및 관리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제도 개선 방안 T/F팀”을 구성하였다. 이 T/F팀 구성 멤버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이다.

지난 5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와 7층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제도 개선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 우리 협의회의 강신욱 집행위원장, 최재원 집행위원, 엄현희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협의 내용은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균등한 기회를 저해하는 제출서류는 불인정 ▲체육특기자로서 대학 진학 이후 부정입학 사례로 확인될 경우 해당 학생선수에 대한 입학취소 조치를 입시요강에 명시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자격기준을 권장함. 단 체종목의 경우 개인 경기실적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과 ‘끼워넣기’ 등의 부정입학 방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최우수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기 위한 우선 선발과 그 외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기 위한 일반선발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장 ▲최근 3년간 경기실적을 보유한 고교 졸업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자격기준 설정을 권장함 등이다.

이 주요 협의 내용을 골자로 협의회는 앞으로도 대학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제도 개선을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 2013 대학야구 체육특기자 입학 자격 요건 개정 협조 요청

2011년,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출범했다.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원스포츠 풍토 조성’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리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교야구 학생선수의 대학 진학과 관련한 각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 요강 변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야구협회는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 각 대학이 체육특기자 선발 시 고교야구 주말리그 성적을 반영하도록 체육특기자 입시 요강 변경 협조를 요청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야구부를 운영하는 32개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우리 협의회에 해당 내용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2012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 야구부를 운영하는 19개 협의회 회원대학 중, 체육특기자 선발 시 고교야구 주말리그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4개 대학(동국대, 동강대, 우석대, 호원대)에 “2013학년도 대학 야구 체육특기자 입학 지원 자격 요건 개정 요청” 공문을 보내 체육특기자 입시 요강 변경을 재요청했다.

“2013학년도 대학 야구 체육특기자 입학 지원 자격 요건 개정 요청”의 구체적 내용은 ▲고교야구 주말리그 출전에 따른 개인 성적(출전 시합 수, 타율, 방어율 등) 반영 ▲제도 도입 2년 차임을 감안하여 현재 고 3학년 선수들의 2010년도 전국고교야구대회 팀 입상 실적 적용 가능 ▲전국대회(왕중왕전) 팀 성적 및 개인 성적만을 적용하는 것은 금지 등이다.

협의회는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원스포츠 풍토 조성’과 더불어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NCAA 매뉴얼 번역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완성도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진 시스템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협의회는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획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학의 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인 NCAA(미국대학스포츠협회)의 매뉴얼 번역을 실시했다.

NCAA 인턴십 수료자 이윤영 박사가 주축이 되어 NCAA Division I 매뉴얼 총 23개 규정 중 한국 대학스포츠 실정에 맞는 핵심 분야 11개 규정의 번역을 진행하고 대학스포츠 활동 원칙, 리크루팅 원칙 등 5개 규정은 감수 및 심층 요약을 진행하였다.

협의회는 NCAA 매뉴얼 번역본을 협의회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에 활용하는 등 학생선수를 위한 체계적인 역할과 정책 등의 선진 시스템의 구체적인 파악을 통한 대학스포츠 업무 기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 과제 공모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1일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 성명서 발표 시 종전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은 대학마다 독자적으로 제정·시행되어 대학스포츠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없음은 물론, 대학 간 공유도 되지 않았음을 들어 ‘한국형 대학스포츠 운영관리 규정’ 마련을 선언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 연구 과제 공모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 과제의 연구 주제는 한국 각 대학의 대학스포츠 운영 사례와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진단·분석하고 미국 NCAA와 일본 학원스포츠 선진 운영 사례 등 외국 사례를 조사·연구하여 한국 대학스포츠의 실정과 비전에 적용할만한 부분을 추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스포츠 표준 운영 규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세부 연구 주제로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과 윤리사항 관련 ▲대학스포츠의 활동과 이에 대한 준수사항 관련 ▲대학스포츠 경기지도자 규정 관련 ▲대학스포츠 체육행정부서 규정 관련 ▲대학스포츠 통합 마케팅 관련 ▲대학스포츠 시설과 운영 관리 관련 ▲대학스포츠 관련 규정 준수사항 관련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협의회는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년의 연구기간과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접수 받아 9월 초 연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 과제 결과를 활용,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과 공익성에 바탕을 둔 고유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 도모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연구」 과제 공모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정상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학스포츠를 비롯한 학원스포츠 선진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대학축구, 대학농구 및 대학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리그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리그제 도입 3년 차 시점에서 리그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이를 통한 발전적인 중장기 과업을 수립하고자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연구’ 과제를 공모했다.

연구주제는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의 전반적 평가 ▲학생선수 학업 및 경기 관련, 리그제 운영 관련 등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의 측면별 평가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의 제도 및 정책 인식 정도 등을 중심으로 리그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이 포함된다. 연구기간은 6개월이며, 연구비로 3천만 원이 지원된다.

협의회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경북대학교 스포츠사회학연구실(연구책임자: 임수원 교수)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11월 중으로 중간결과를 도출하여 차기년도 리그 운영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최저학력제) 시행(2011년) 및 학교체육진흥법 시행(2013년)에 따라 이 학생선수들의 대학 입학을 대비하여 대학의 '학생선수 자격심사'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 시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학생선수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2014년부터 그 관련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와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선수

자격심사 등 대학스포츠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구소는 협의회 소속으로 설치될 가칭 '학생선수자격심사위원회'의 고교학생선수 대학 진학과 관련한 심사과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 협의회와 연구소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 방안 수립에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협약 기간은 3년이다.

## 협의회 임원 선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정관 제15조 4항에 의거 제2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서면총회를 개최하고 제2기 임원을 선출했다.

협의회 제1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협의회의 창립총회일인 6월 8일을 기준으로 서면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부회장 3인, 이사 10인, 감사 2인 등 모두 13인을 선출하였다. 협의회 제1기 임원의 임기는 2010년 7월 26일부터 2012년 7월 25일까지였으며, 제2기 임원의 임기는 2012년 7월 26일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이다.

한편, 협의회는 2011년 11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제1대 회장으로 재임한 김한중 연세대 총장의 총장 임기가 2012년 1월 31일부로 끝남에 따라 그 자리를 이어받을 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장호성 단국대 총장을 선임한 바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협의회 제2대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과 함께 제2기 임원으로 선출된 15개 대학 총장이 앞으로 2년간 우리 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협의회 제2기 임원 선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장호성(단국대)
부 회 장	유병진(명지대) 안국신(중앙대) 임덕호(한양대)
이 사	최호준(경기대) 조인원(경희대) 김병철(고려대) 박희중(관동대) 김희욱(동국대) 강태범(상명대) 정갑영(연세대) 김정행(웅진대) 김종욱(한체대)
감 사	김재홍(서라벌대) 안재환(아주대)

## KUSF 상표권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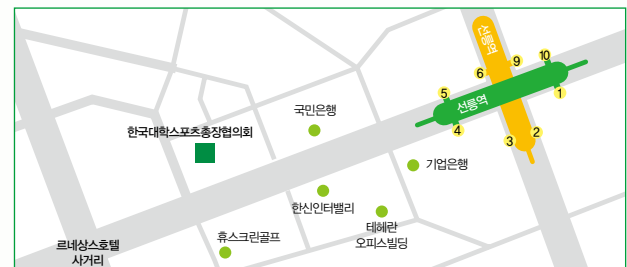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본 협의회의 영문명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의 머리글자를 딴 명칭 KUSF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우리 협의회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10년간 보장된다.

## 사무국 이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기존 마포에 있었던 사무국을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근처로 이전했다. 이로써 서울·경기를 아울러 위치한 많은 회원대학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사무국 주소는 다음과 같다.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135-7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2005호



#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

## 청주대 스트라이커 공민현



2011년, U리그는 프렌드십을 신설하며 변화를 꾀했다. 비록 현장의 반대에 부딪히며 단발성에 그치고 말았지만, 챔피언십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에게 의미 있는 대회였음은 분명하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프렌드십의 우승컵을 들어 올린 팀은 청주대. 상대 팀이 실격패 당한 첫 경기를 제외한 5경기에서 자그마치 23골을 터트리는 동안 단 3골만을 허용했다. 무려 +20의 압도적인 골 득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헤트트릭을 비롯해 6득점을 기록하며 대회 득점왕에 오른 공민현이 있었다.

### 청주대에서의 새로운 시작

고교 졸업 후 청주대에 진학한 공민현. 많은 선수들이 그렇듯 수도권 대학 진학을 원했던 그였지만 청주대 진학 후 반전의 기회를 맞이했다. “감독님이 처음 청주대 원서를 내미셨을 때 솔직히 실망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청주대에 진학한 덕분에 1학년 때부터 경기에 뛠 수 있었죠.”

팀의 선수층이 두텁지 않았기에 공민현은 1학년 때부터 곧바로 경기에 나설 수 있었고, 첫 경기부터 선제골을 넣으며 주어진 기회를 붙잡았다. 첫 시즌이 끝난 후 받아든 성적표는 13경기 출장하여 5골, 1도움. 성공적인 루키시즌이었다.

하지만 2학년이 되고 위기가 찾아왔다. 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한 것. 공민현은 4월부터 6월까지 단 한 번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가을이 되어서야 복귀할 수 있었지만 부상당한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남은 시즌 간간이 교체선수로 투입되는데 그쳤고, 청주대가 U리그에 참가한 첫해였기에 아쉬움은 더욱 컸다.

절치부심해서 맞은 3학년, 공민현은 다시 날아오르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다. 작년에는 모든 팀이 다 어려웠던 것 같았다며 자평한 죽음의 조에서 권역 득점 3위를 기록했고, 프렌드십에서는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프렌드십에서 워낙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이를 토대로 공민현과 청주대의 장밋빛 전망을 점치는 이도 많았다.

### 덴소컵, 그리고 4학년

2012년, 공민현은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서 4경기 4골을 기록한 저력을 인정받으며 제9회 덴소컵 대학선발팀에 합류한 것. “덴소컵 뽐냈을 때가 전성기였죠. 훌륭한 선생님들과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니 배우는 점도 많고, 또 대표로 뽑히다 보니 주목도 많이 받았고요. 프로팀 스카우트들도 경기를 많이 보러 오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12년은 공민현이 축구 인생 최고의 슬럼프로 꼽는 해이기도 하다. 득점 페이스도 지난해에 비해 주춤하고, 골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스스로도 못내 아쉽다. “4학년 병이라고 할까. 좀 안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니까







뭔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올해 팀이 더 좋은데 지난해보다 골을 많이 못 넣으니까 아쉽죠.”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생활, 공민현의 목표는 U리그 전승, 왕중왕전 진출,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좋은 팀에 가는 것이다. “U리그 남은 경기 다 이겨서 왕중왕전에 나가는 게 목표예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좋은 팀에 갈 수 있겠죠?”

### 축구선수의 꿈

공민현은 중학교 때까지 미드필드로 뛰다 센터포워드로 전향했다. 지금의 포지션이 더 마음에 든다는 그는 좋아하는 축구선수도 안정환, 박주용, 베르바토프, 반 페르시까지, 하나같이 센터포워드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다.

하지만 공민현이 센터포워드로 성공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웨이트. 공민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지컬적인 부분은 당연히 키워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워낙 살이 잘 안 붙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래서 몸싸움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힘만으로 몸싸움에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가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승부를 봐야죠.”

그렇다면 그가 바라는 선수상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꺼렸지만, 내놓은 대답은 의외로 간결했다.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있고, 혼자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요.”

마지막으로 리그에서 남은 6경기를 주목해달라는 말을 남기며, 공민현과의 인터뷰는 끝이 났다. 올해 리그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스스로 많이 아쉬워하던 공민현. 하지만 그러한 아쉬움이 있기에,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열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해보자.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권오준

### 청주대학교 4학년 공민현

#### 시즌기록

2012 카페베네 U리그 중부4권역 10경기 3득점  
제 48회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 4경기 4득점  
제 43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3경기 1득점

#### 주요경력

2011 카페베네 U리그 프렌드시십 득점왕  
2012 제9회 덴소컵 대학선발

# 단국대의 기둥, 고군분투 김상규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자가 올 초 인터뷰하며 붙였던 ‘꽃사슴’이라는 별명에 대해 물으니 스스로는 영 부담스러운 눈치다. 하지만 ‘철인’이라면 어떨까? 아마 본인도 쉽게 수긍할지도 모른다. 대학농구 리그 전 경기 출장에 총 11시간 58분 40초, 경기당 평균 39분 55초를 뛰고 있는 김상규. 이는 2011-12시즌 KBL에서 뛰었던 용병들의 평균 출전 시간을 훌쩍 웃도는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올 시즌 단국대에서 김상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 4학년, 철인 김상규

단국대는 지난해까지 빠른 농구를 구사하는 팀이었다. 그렇다면 올해 단국대의 팀컬러를 정의한다면 뭘까? “저희가 작년까지 빨랐는데, 올해는 사실 가드진이 명지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체력전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뛰는 농구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장이 작다 보니, 공격옵션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곽에서 한방을 터뜨려줄 해결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 상대 팀이 김상규를 이중, 삼중으로 마크하기 때문에 외곽에 찬스가 많지만, 팀 내 30% 이상의 외곽슛 성공률을 기록하는 선수가 거의 없다. “아무래도 혼자 해결해야 하니까 힘든 부분이 많죠. 다른 애들도 잘해 줄 때가 많지만,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빠지면 그걸로 공격하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김상규는 매 경기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집중 견제 속에서도 평균 29.1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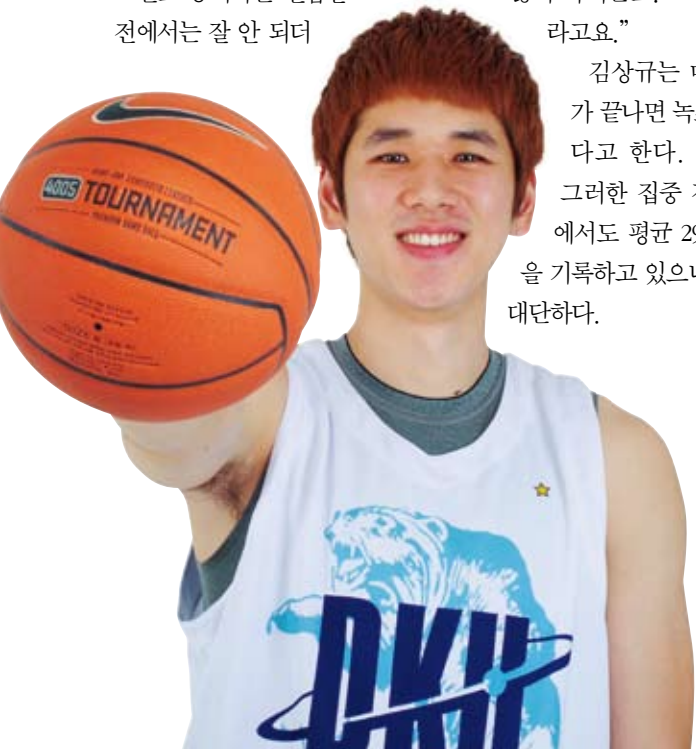
## “윤호영 선수를 닮고 싶어요.”

롤모델, 또는 닮고 싶은 선수가 있냐고 하자, 예상한 답변이 나온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윤호영처럼 큰 키를 갖추고 빅맨 역할과 외곽을 동시에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갖춘 선수가 거의 없다. 현재 김상규가 바라볼 수 있는 최종 진화형이 윤호영인 셈. 하지만 윤호영처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인사이드에서도 쉽사리 밀리면 안 된다. 김상규도 그걸 알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원래는 조금 소극적인 스타일이었는데, 대학 와서는 몸싸움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웨이트를 틈틈이 하고 있기는 한데 시합이 많다 보니 주기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좀 더 키워야죠.”

빅맨이 아닌 스몰포워드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치는 그에게 올해의 목표를 물으니 좀 더 열심히 해서 드래프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라 한다. 김상규는 현재 대학리그에서 득점, 리바운드 순위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와의 격차도 제법 크다. 또 프로 1년 차 선수들이 드러내는 체력적인 문제에서도 김상규는 철인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플레이 시간을 소화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목표가 절대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올해 프로농구는 드래프트를 앞당기며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대학 선수들은 졸업 후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좀 더 가혹한 경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김상규 본인의 말처럼 오래 기억에 남고, 사랑받는 선수가 될 수 있다. 김상규가 단국대의 기둥을 넘어서 또 하나의 트리플 타워의 한 축이 될 수 있을지, 대학리그 마지막 활약을 지켜보자.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권오준



## 단국대학교 4학년 김상규

### 시즌기록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평균 29.2득점 14.8리바운드 2.4어시스트  
제 28회 영주시장배 MBC전국대학농구대회 평균 13.3득점 13리바운드

### 주요경력

2012 대학농구 올스타전 선발



# 숨은 살림꾼, 성균관대 박윤성

명실상부한 대학배구계의 강자 성균관대. 그러나 지난 5월, 춘계 리그 4강전을 앞두고 성균관대는 위기에 봉착했다. 성균관대 에이스 전광인이 국가대표에 차출됐고, 그와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끌던 심경섭은 부상을 당해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주전 공격수 두 명이 한꺼번에 빠진 상황, 팀의 믿음만한 공격 옵션은 주장이자 레프트인 박윤성뿐이었다. 그 역시 공을 때리는 오른손 손가락뼈에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차(車) 떼고 포(包) 뎀’ 팀에서 그마저 빠질 수는 없었다. 박윤성은 다친 손으로 고군분투했으나 성균관대는 내리 3연패를 당했다. 그러나 팀플레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본인의 부상, 이중고를 안은 채 출전한 그는 대회 시상식에서 감투상을 받았다.

## 성균관대 배구부 주장, 박윤성

대학리그 종목별 팀의 만행이자 버팀목이 되는 학생선수를 표지 인물로 선정했다는 말에 그는 ‘(표지에) 우승팀으로 나오면 좋았을 텐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도 이기고 받았으면 더 기뻐할 텐데 지고 받은 거라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대회 당시, 4강전을 잘 마무리해야 팀원들이 이어지는 종합선수권대회와 추계리그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말 힘들었다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경기 내외를 모두 신경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럼에도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기량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후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한 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상금은 물론 팀의 몫이 됐다. 배구부의 주장 겸 살림꾼은 상금으로 숙소에 필요한 삼푸, 세제 등의 생필품을 샀다. 코트에서 숨은 공헌을 하는 선수를 ‘살림꾼’이라 칭하는 것을 떠올리면 박윤성은 코트 안팎으로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좋은 선배’라는 칭찬에 그는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며 웃었다.

아직도 많은 배구팬에게 박윤성은 조금 낯선 이름이다. 지난해까지 쟁쟁한 선배들에 가려진 탓에 그의 출장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는 08학번들의 프로행 이후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나섰다. 전형적인 에이스 유형과는 거리도 먼데다가 경험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성실함을 앞세워 성균관대 배구부의 주장이 됐다. 이전까지 본인의 기량 향상에만 초점을 맞췄던 박윤성이지만 팀의 대표가 되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후배들을 어떻게 이끌지 고민하다 잠 못 이루는 날

이 허다했다. 고향(부산)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팀 동료가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자신의 플레이에 대해 선후배를 막론하고 팀 동로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했다.

자신이 안 되는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들으며 고칠 점을 찾아 나갔다. 경험이 부족한 탓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다.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된 셈이었다.

## “우승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현재 4학년 학생선수들은 대학생으로서의 마지막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박윤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작년까지 선배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우승을 하고 나갔다. 추계대회에서 우승해야 후배들 보기에 멋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대회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올해 대학배구는 경기대가 연승을 이어가며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그런 경기대를 두고 박윤성은 ‘우리 팀이야말로 그 팀을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 성균관대는 종합선수권대회 결승전 패배 이후 벌어진 경기도 평가전에서 1세트를 따내고 2세트도 24대 19로 리드하며 경기대 킬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후배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감독님께 말이 아닌 우승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는 박윤성의 바람이 이루어질지 9월 추계리그가 더욱 기대된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서혜연

## 성균관대학교 4학년 박윤성

주요경력

2012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 감투상

#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 YTN 연중기획 캠페인 '나누는 행복, 따뜻한 사회'



**박희종 관동대 총장**은 YTN 연중기획 캠페인 '나누는 행복, 따뜻한 사회'에 출연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제지간의 상호 존중하는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 각 계층의 인사가 출연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 코리아를 만들기 위

한 제언을 캠페인 형식으로 방영하는 공익 캠페인이다.

한편 지난 6월 23일, 24일 양일간 박희종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교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경비대(대장 김병현)에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제 10회 호심배 골프대회 우승선수 격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6월 22일 전남 화순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 10회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시상식에서 남·녀 우승자인 김효석(한체대 1년)선수와 김효주(대원외고 2년)선수 등 입상자들을 격려하고 대회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광주대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가 광주대 무역학과 출신인 최경주 선수의 PGA투어 우승을 기념하고,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03년 창설해 올해로 10회째 맞은 이번 대회에서 김효석선수는 268타(67-69-67-65) 16언더로, 김효주선수는 273타(68-68-70-67) 11언더로 각각 남·여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지난 5월 24일, 광주지방법원장실에서 지대운 법원장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광주대와 광주지법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상호 교육정보의 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기부를 통한 창의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육성된 인적 자원의 사회 환원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 북경대학교와 교류협력 협약 체결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5월 8일, 중국 북경대학교 영빈관에서 단국대학교와 북경대학교(조우치핑 총장)의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단국대학교와 북경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학생 교환, 교수 교환, 공동연구프로젝트 진행 등 긴밀하고 우호적인 상호교류를 약속하였다. 더불어 장호성 총장은 6월 27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이호연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군사학과 신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단국대학교는 천안캠퍼스에 엘리트 해병 장교 양성을 위한 '해병대군사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수시와 정시를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입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해병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4월3일에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간담회를 단국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호성 총장을 비롯해 김종욱 총장(한체대), 방열 총장(건동대), 최호준 총장(경기대), 황선조 총장(선문대) 등 17개교의 총장 및 부총장 등 학교대표들이 참석하여 대학스포츠의 발전과 협안들을 논의하였다.

## 광주경영자총협회주관 금요조찬 포럼 특강



**류재민 동강대 총장**은 지난 4월 20일 광주경영자총협회 주관 금요조찬포럼에서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회적 현상과 지역현황, 그리고 구인·구직 현장의 소리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미스매칭의 요인을 분석한 후 해결방안으로 정부와 기

업, 대학 등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금요초찬 포럼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광주시민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경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 CEO 리더십 함양, 조직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실시되어왔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에 학계, 관료, 전문지식인 등 국내외 최고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경제, 경영, 노동, 의식혁신 분야에 대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정량부 동의대 총장**은 5월 10일 부산 시청에서 개최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기 2년의 제20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지난 3월 22일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부산 과학기술협의회 2012년도 정기총회 및 CTO평의회에서도 제6대 이사회 공동 이사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한편, 동의대는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축구, 야구, 배드민턴, 펜싱, 유도 등 5개 종목에서 부산 대표로 출전한다. 동의대가 운영하는 5개 종목 모두가 부산 대표로 선발된 것은 동의대 사상 처음이다. 축구부는 부경대, 동아대와의 경기에서 각 1승 1무로 1위를 차지하며 부산 대표로 선발되었고 야구부는 올해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3년 연속 전국체전 부산 대표로 출전한다. 유도는 전체 7체급 중 5체급에 대표로 출전하며 배드민턴은 남자 단식과 복식, 펜싱은 사브르 남녀 개인 및 남녀 단체전에 부산대표로 나선다.

동의대 박찬호 체육진흥단장 "동의대는 펜싱과 배드민턴 등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에 축구와 야구에서도 부산 대표로 선발됐다"면서 "동의대가 부산지역 대학체육을 대표하는 학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장 재선임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2012년 3월 5일 오후 1시, 라마다 수원에서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2011 사업보고회 및 2012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장에 재선임된 유병진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협의회의 성장에 큰 힘이 되어준 회원대학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앞으로의 사업에



도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아울러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는 대학과 대학생, 기업,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그린캠퍼스 실천 사업 지원 ▲대학생 환경·에너지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제3회 국제 포럼 개최 ▲경기도형 그린 리그제 시행,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의 사업을 진행해 아시아 그린캠퍼스 선도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기총회이후 진행된 사업보고회에서는 '2011 그린캠퍼스 환경동아리 실천 공모사업'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명지대 학생 환경동아리 나비효과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유병진 총장의 회장 재선임으로 다시 회장교가 된 명지대는 그린캠퍼스 선도대학으로서 관련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서라벌대학교 교수들, 국가공인자격증 교재 집필위원 선정



**김재홍 서라벌대학교 총장**은 2012년 4월 12일 오전10시 서라벌대학교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마필산업 육성사업 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주시의회의원 3명과 경주시청 축산과 공무원 2명 및 대학 마사와 교수와 학교관계자 등이 참석해 서라벌대학교 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라벌대학교 승마장 조성사업은 현재 국비와 지방비 15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경주시 총효동에 총 부지면적 38,360㎡에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사동, 원형마장 등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해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의 건축인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서라벌대학교는 경북말산업육성협회와 전남 장흥의 한국말산업고등학교, 경기도 양평의 미래 승마클럽과 금년 상반기 중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금년 2월 마사와 졸업생들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힐링센터 교관과 재활학교 말 관련 기능



##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교사, 개인승마장 개업 및 말 관련 대학원 진학 등으로 진로가 확정된 상태다.

김재홍 총장은 앞으로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사와 학생뿐 아니라 경주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승마장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전국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기 전달받아



**안재환 아주대 총장**이 하석주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제8회 전국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기를 전달받았다. 2010년에 이은 통산 3번째 우승이며, 아주대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총 7경기에서 단 한골도 내주지 않은 반면 13골을 기록해 공수가 균형 잡힌 막강의 전력을 과시했다.

안재환 총장은 선수들에게 “전국대회 우승으로 학교 명예를 높여줘서 고맙다. 이번 우승이 학교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을 모두 실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프로축구단 포항 스틸러스 신임 사장 접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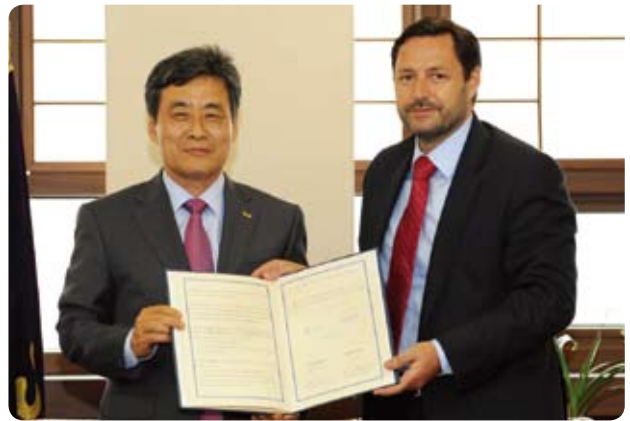


**이효수 영남대 총장**은 2012년 4월 14일 영남대학교 총장실에서 장성한 신임 포항스틸러스 사장과 최헌태 단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

였다.

이 자리에서 이효수 총장은 영남대학교 동문인 장성한 사장의 모교 방문을 환영하면서 영남대학교 축구부에 대한 포항 스틸러스 구단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장성한 사장은 지역 명문 축구 구단으로서 영남대학교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구단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중앙대학교-영국문화원 업무협약 체결식



**안국신 중앙대 총장**은 6월 11일, 오후 2시 201관(본관) 2층 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와 주한 영국문화원이 문화, 교육교류 및 IELTS 시험진행과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중앙대학교와 주한 영국문화원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목표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활성화, 교육교류의 다양화, IELTS 시험진행의 협력 등과 같은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정 체결에 앞서 안국신 총장은 “중앙대학교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을 계기로 양 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한 영국문화원 원장 롤란드 데이비스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와의 MOU는 다양한 사람들의 우수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



**김형태 한남대 총장**은 지난 6월 22일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4년 4월 17일까지 인적자원분야 정책발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김 총장은 “정책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발전하는 공군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태 총장은 7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주최로 열린 ‘학생창업인 공감마당’에 초청받아 창업사례를 발표하는 한남대 참가학생들을 격려했다. 전국 대학생 창업동아리 회원, 대학생 창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학생들은 정부관계자 및 청와대 비서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학생 창업 사례 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한남대학교에서는 신다윗(경영정보학과), 권수연(디자인학과), 정무영(영어영문학과) 학생이 참석해 사례 발표를 하여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 필리핀 페르나떼에 희망을 심다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함께한대(단장/구자준)’가 해외봉사단을 조직해 필리핀 페르나떼 지역에서 사랑을 실천했다. 총 79명의 봉사단이 6개의 팀을 꾸려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양대학교 임덕호 총장**은 직접 필리핀 페르나떼 지역을 방문하여 함께한대 봉사단을 격려하는 한편 같은 한양인으로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발대식에 참석한 임덕호 총장은 필리핀과 한국의 인연을 설명하며



한양의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행하고 있는 함께한대 봉사단이 일주일동안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을 하기를 당부했다.

#### 2012년도 하계 홍익국제사회봉사단 발대식



**장영태 홍익대 총장**은 2012년 6월 19일(화) 오후 3시, 홍익대학교와 우관에서 『2012 하계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세계를 무대로 삼고 매년 15개국에 300명 규모의 국제사회봉사단을 파견하는 홍익대학교는 봉사에 앞서 모든 참가자가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현지인에게 꼭 필요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영태 총장은 발대식에서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세계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봉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그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그래야만 국제사회봉사의 의의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도로시설보수 등 사회기반 구축에서부터 현지인을 교육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문화봉사까지 다양한 형태의 봉사로 국위선양에 한 몫을 하고 있는 홍익국제사회봉사단은 학점취득도 가능하여 국제봉사활동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2012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하반기 주요 계획

##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연구” 결과 도출

우리 협의회는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리그제 도입 3년 차 시점에서 리그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실태 분석을 통한 리그제 개선방안 도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회는 이 연구 결과를 차기년도 리그제 운영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오는 12월 예정되어 있는 제3회 대학경기지도자 정례 워크숍 핵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스포츠 정상화의 기본 과제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개인·팀 경기력 향상과 대학 구성원의 대학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의 새로운 대학스포츠 문화 조성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발굴을 통한 대학스포츠 브랜드 강화 사업

우리 협의회는 우수한 학업성적과 뛰어난 경기력을 보유한 학생선수의 지속적인 발굴로 대학스포츠의 지향점인 학생선수의 “공부와 운동 병행하기”를 구현하여 대학스포츠 정상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를 발굴·시상할 예정이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회원 대학 소속으로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선수 중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전인적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있어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학생선수를 선발한다. 전(全)학년 성적과 자기추천서, 총장추천서 등을 종합 심사하여 종목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총 9명을 선발하며, 이들에게는 협의회 회장 명의 표창장과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이 학생선수를 대학스포츠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대학스포츠 브랜드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대학 학생선수와 체육학 전공자 진로취업가이드북 제작

협의회는 ‘대학 학생선수와 체육학 전공자 진로취업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스포츠관련 전공자는 타 전공자에 비해 전공 관련 취업률이 비교적 낮고, 현재 대학의 진로취업가이드북은 스포츠관련 전공자가 활용 가능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사상 처음으로 위 전공자들에게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북 제작을 실시한다.

스포츠관련 전공자가 진출 가능한 직업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취업 전략, 자격증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10월 중 제작 완료하여 12월까지 전국 120개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시스템 개발 사업

대학배구리그의 공식 기록을 통합 관리 및 서비스하여 대학배구리그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배구리그 경기 운영과 경기 기록지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하고자 한다.

협의회는 입찰을 통해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시스템 개발”의 개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개발내용은 ▲대학배구리그 전 경기의 경기내용을 기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기 운영 또는 경기 기록 담당자가 네트워크 환경에 무관하게 입력 및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정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축 등이다.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시스템 개발로 대학배구리그 출전 학생선수와 팀의 경기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대학스포츠의 공익적인 자료 축적 및 활용을 통한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학스포츠TV 운영

2012년 4월, 대학스포츠TV가 개국했다. 8월 현재, 대학스포츠TV를 통해 대학농구리그 및 대학배구리그 44경기가 생중계 되었다. 대학스포츠TV 시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생방송으로 학교 체육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가 스포츠맨십 발휘를 위해 보다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협의회는 하반기에도 대학스포츠TV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이어 대학농구리그 및 대학배구리그 경기 생중계를 진행하고, VOD 서비스도 확대한다. 더불어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등 대학생을 현장 리포터로 활용하고, 가칭 ‘대학스포츠 UCC 대학생 기자단’을 구성, 대학스포츠의 주인공인 대학생의 시선에서 생생한 대학스포츠 현장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와 같은 대학스포츠TV 운영으로 대학스포츠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대학스포츠 및 대학경기리그의 가치 공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대학경기지도자 정례 워크숍

2010년,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대학경기지도자 정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대학경기리그의 현장 책임자인 대학경기지도자에 대한 보수교육 중심의 워크숍으로서, 특히, 올해는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만큼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의 단기적 평가와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대 주제로 정하고자 한다. 협의회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중심으로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에 참가하고 있는 지도자의 종합 토론을 실시하는 등 정례적인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2005호  
전화: 02-707-3767 팩스: 02-707-3766  
[www.kusf.or.kr](http://www.kusf.or.kr)